

오피스텔도 월세가 '대세'... 입주물량 줄어 월세 상승 이어질 듯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했지만 월세는 상승 서울 오피스텔 입주물량 13년 만에 최저...월세 상승 지속

“요즘처럼 월세가 잘 나가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내 오피스텔을 전문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를 원하는 대기자들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전만 해도 공실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월세만 내놓으면 바로 나갈 정도”라며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매물 찾는 게 일”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전세 사기 여파, 아파트 전셋값 상승 등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청년층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오피스텔 월세는 상승세다. 반면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56%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분기(-0.37%)보다 컸다. 서

울(-0.14%→-0.38)과 수도권(-0.26%→-0.45%) 모두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율은 지난해 3분기 -0.82%에서 4분기 -1.02%로 하락 폭이 컸다.
전셋값도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38% 하락했다. 서울이 0.26% 하락했고 인천(-0.58%)과 경기(-0.27%) 등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월세는 0.1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0.42%)와 대전(0.33%), 울산(0.33%), 세종(0.09%) 등이 오피스텔 월세 상승세가 뚜렷했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평균가격은 6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에 오피스텔 전세금 회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난 데다, 고금리에 자금동력이 제한된 여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50만원 대 월세 오피스텔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고가월 임대료 60만원 이상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8%에서 2022년 54.1%, 지난해(1~11월 기준) 60.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텔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의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오피스텔로 갈아타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데다,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신규 입주물량 감소 역시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13년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신규 입주물량은 3703실로, 2011년(3052실) 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11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국토교통부 기준)은 1만3868가구로, 2022년(4만2803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월세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전세 사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 등의 이유로 임차인들이 오피스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자 부담에 따른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올해 오피스텔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당분간 월세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권기자

대중교통비 20~53% 환급받는다... 'K-패스' 5월부터 시행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4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6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After																																				
현행 일반교통카드를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일일교통카드보다 다양한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table border="1"> <tr><th>대중교통</th><th>일반</th><th>-2천 원</th><th>2~3천 원</th><th>3천 원~</th></tr> <tr><td>일반</td><td>-250원</td><td>-350원</td><td>-450원</td><td></td></tr> <tr><td>청년</td><td>-350원</td><td>-500원</td><td>-650원</td><td></td></tr> <tr><td>저소득</td><td>-700원</td><td>-900원</td><td>-1,100원</td><td></td></tr> </table>	대중교통	일반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table border="1"> <tr><th>대중교통</th><th>K-패스</th><th>적립률</th><th>혜1,500원 기준</th></tr> <tr><td>일반</td><td>20%</td><td>300원</td><td></td></tr> <tr><td>청년</td><td>30%</td><td>450원</td><td></td></tr> <tr><td>저소득</td><td>53%</td><td>800원</td><td></td></tr> </table>	대중교통	K-패스	적립률	혜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대중교통	일반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대중교통	K-패스	적립률	혜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이용 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청년층의 경우 30%를 환급하는데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층은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

아 2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니온 등이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췄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딸기값 급등” 특급호텔 딸기케이크 줄인상



딸기값이 급등하자 특급호텔의 딸기 케이크와 빙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특급호텔 조선 팰리스는 지난달 출시한 딸기생크림 케이크 가격을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11.4%) 인상했다.
웨스턴 조선의 딸기 빙수 가격도 기존 6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3000원(4.6%) 올랐다.
딸기 디저트 가격이 오른 것은 딸기 값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호텔서울 델리카한스의 프리미엄

조선팰리스 전년 대비 11.4% ↑
엄 딸기 케이크는 9만8000원으로 지난해 8만5000원보다 15.2% 올랐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시그니처 딸기 트리 가격을 11만원으로 책정하며 지난해 9만3000원보다 18.2%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딸기 중도매인 판매가격(상품·2kg 기준)은 3만5150원으로 1년 전(2만8956원)과 비교해 21.3%나 급등했다. 또 한 달 전(3만2706원)과 비교해도 7.4% 인상됐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평균값(최저·최고 가격 제외) 2만9095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딸기 값이 크게 인상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호텔 디저트에 사용하는 딸기는 당도가 높은 프리미엄 급만 쓰기 때문에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보이고 크기나 재료 등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K푸드+ 수출 121억弗 '역대 최고액' 달성

농식품 수출액 91억6000만 달러...8년 연속 상승
농식품부는 작년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 본부'를 발족하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60회 이상 장차관 및 실국장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추진했고 매주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 수출 점검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목표를 작년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음 달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 대응,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인 135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광주·전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신규 특별자금 풀린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14개 지역에 4969억원 한시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특별자금 4969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7일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통화 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대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마련했다.
기존 지방중소기업 지원 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본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 대출을 포함한 기존 금융 중개 지원 대출 관련 대출금 상환 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자금은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저신용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신용(4~5등급) 업체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저신용(6~10등급·무등급·소호 포함) 업체에 대한 75%를 지원하며 업체당 한도는 10억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지원 자기에 더해 상당한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위니아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

“30년 데이터 축적” 아디다스, ‘프레데터 24’ 새롭게 공개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프레데터 축구화의 30주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레데터 24(Predator 24)’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공개된 ‘프레데터 24’는 골을 위한 기술력을 극대화한 축구화로 1994년부터 3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프레데터 24’의 스트라이크존에는 ‘스트라이크스칸’이 적용돼 발동에 공이 닿는 순간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한다.
이번 ‘프레데터 24’는 끈이 없는 레이스리스 버전과 끈이 있는 버전 외에도 설피가 발달된 체를 덮는 폴드오버 형태의 디자인도 함께 선보인다.



이슬비기자